

‘청년 일자리 허브’ 화순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특구 5000명 고용·100곳 유치 바이오 인력양성 실습장 역할

화순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가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청년 일자리 허브로 발돋움하고 있다. 화순군이 백신특구에 5000명 고용, 100개 기업 유치, 총매출 1조원을 목표로 하고 있어 지역 일자리 창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3일 화순군에 따르면 민선 8기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화순백신산업특구가 생물의약품산업단지화 화순전남대학교 병원을 양대 축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지난 2002년 전남 바이오산업진흥원 설립 이후 2002~2013년 1단계 인프라 구축, 2014~2019년 2단계 사업영역 확장, 2020년 이후 3단계 벤처창업 육성 시기로 이어지고 있다.

화순생물의약품산단에 백신을 비롯해 의·생명 분야인 바이오 클러스터가, 화순전대병원엔 의료가기 분야인 메디컬 클러

스터가 구축됐다. 화순백신특구는 지난 2009년 신종플루 독감백신 공급과 2020~2021년 코로나19 임상시험용 백신 생산 등 국가 백신 주권 확보에 기여했다.

바이오 GMP 제조 전문인력을 158명 배출하고 2024년 WHO 글로벌허브 바이오 인력양성 실습장으로 지정되는 등 인력양성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창업보육센터에 14개 사가 입주해 115명 고용, 57억원 매출 실적을 냈으며 졸업기업 5개 사는 54명 고용, 13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지난 2010년 화순백신특구 지정 이후 지금까지 고용인원 1441명이 늘었으며 기업유치 실적도 지난 2021년 33개로 10년 사이 10배가 넘었다.

화순군은 오는 2030년까지 화순백신특구에 5000명 고용, 100개 기업 유치, 총매출 1조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발전전략으로는 첨단바이오 신약개발 인프라 고도화, 오픈이노베이션 혁신체



화순군이 2030년까지 백신특구에 5000명 고용, 100개 기업 유치, 총매출 1조원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화순군 제공

계 확립, 백신산업특구 확장, 대형 국책 과제 수행,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조성 등 5개 과제를 수립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국내 유일의 백신특구를 보유한 화순군에서 젊은 청년들

의 꿈이 영어갈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권 원자력 의학원 분원 유치,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화순-김선중 기자

관광지 입장료 무안상품권 환급 무안군, 4월1일부터

무안군은 오는 4월1일부터 관내 유료 관광지 입장료 전액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고 23일 밝혔다.

관광지 입장료 환급 서비스는 무안군을 찾는 관광객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다.

사업 대상지는 무안황토갯벌랜드, 전통생물문화테마파크, 밀리터리테마파크 등 유료 관광지 3개소이다.

관광객들은 관광지 입장권을 발권하면 입장료 전액을 무안사랑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받은 상품권은 무안군 지역 내 전통시장, 식당, 숙박시설 등 무안사랑상품권가맹점(3857개소)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무안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안-김행언 기자

광양시, 사회적 경제조직 성장 지원

3개 분야 9개 사업 확정

광양시가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계획 3개분야 9개사업을 확정지었다. 올해에는 신규사업으로 사회적경제아카데미를 운영, 사회·경제에 관심있는 예비 사회적기업가 등을 대상으로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해 사회적 경제조직 양성에 나설 계획이다.

23일 광양시에 따르면 2023년 제1회 광양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위원장 부시장)를 열고 2023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위원장인 주순선 부시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부위원장으로 최광신 남부대학 교수를 선임했으며 이어 2023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올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계획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통합 구현’이라는 목표로, 주요 추진과제는 3개 분야에 9개 사

업으로 계획돼 있다.

3개 분야는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 및 육성 지원 △사회적경제 기반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회적경제 판로 지원 및 홍보다. 9개 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 △사회적경제센터 운영 △사회적경제조직 간 담회 및 워크숍 △선진지 벤치마킹 추진 계획 등이 포함됐다.

올해 신규사업인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를 통해 사회적경제에 관심 있는 시민과 예비 창업가, 예비 사회적기업가 등을 대상으로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사회적 경제조직을 양성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광양시의 지속가능한 경제와 상생, 나눔의 따뜻한 공동체를 이끌어간다는 자부심과 자긍심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함평군 월야면 지변마을 입구에 있는 수령 265년 된 느티나무가 고사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사라지게 됐다. 함평군 제공

수령 265년 함평 느티나무 보호수 고사

함평군 한 시골마을에 있던 수령 265년의 느티나무 보호수가 고사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사라지게 됐다.

23일 함평군에 따르면 군은 월야면 지변마을 입구에 있는 느티나무 1그루를 보호수 지정에서 해제하고 조만간 제거할 계획이다.

이 나무는 수령 265년의 높이 18m 크기로 지난 1995년 6월 보호수로 지정됐다. 보호수는 수령이 100년 이상 된 수목으로 산림보호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지정하고 관리하는 나무다. 보호수 지정과 해제는 국유지는 산림청이, 개인 사유지나 공유림은 자치단체가 맡고 나무 관리 책임은 자치단체에 있다. 지변마을은 지난 2000년 ‘범죄 없는 마

을’로 선정되면서 받은 포상금으로 느티나무 보호수 옆에 주민 쉽터인 정자를 건립했다. 도로 콘크리트 등이 나무 뿌리를 덮으면서 보호수의 생장 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보호수는 뒷둥이 대부분 잘렸고 몸통도 겹질이 벗겨지는 등 고사가 진행되고 있다. 2010년 보호수에 영양제를 주사하고 외과수술도 병행했으나 고사를 막지는 못했다.

함평군은 마을 주민들에 보호수 지정 해제와 제거 계획을 안내했으며 조만간 같은 종인 느티나무를 식재할 예정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수령이 오래이다보니 외과수술을 해도 고사가 조금씩 진행돼 결국 보호수 지정을 해제했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담양군, 대나무밭 체험 시범 운영



담양군은 최근 세계중요농업유산 담양 대나무밭을 경험하며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농업유산 마을해설사, 담양군풀뿌리공동체와 함께 ‘담양 대나무밭 체험프로그램 발굴 및 시범 운영 사업’을 추진했다고 23일 밝혔다.

행사에는 탐방객 20여 명이 농업유산 핵심마을인 담양읍 삼다리리 월산면 월산마을을 방문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농업유산해설사의 설명과 죽로차다도 체험 대나무를 이용한 굴렁쇠 만들기, 대나무숲 산책로에서 즐기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놀이 등 가족이 함께 교감할 수 있는 체험도 진행됐다. 조선용 기자

결혼이민자 전문강사 역량강화 전남여성가족재단



전남여성가족재단(원장 성혜란)은 다문화 분야에서 활동 중인 도내 여성 결혼이민자 전문강사(이중언어강사·다문화 이해교육강사 등) 64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과정을 개강했다고 23일 밝혔다.

4월7일까지 권역별 각 3회차, 18시간으로 운영될 계획이며 여성 결혼이민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이동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동·서부권 찾아가는 교육으로 진행된다.

학교 현장에서 가장 활용하는 교안 작성, 교구 제작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된다. 한국어 문법 및 발음 교정, 학습대상자별 맞춤형 교안 작성법, 세계시민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성혜란 전남여성가족재단 원장은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감수성 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간재 기자

전남도, 오늘 결핵예방의 날 기념식

전남도가 24일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도립도서관 강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한다. ‘결핵 없는 사회, 건강한 전남’ 슬로건을 주제로 결핵 예방관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 보건의료기관, 국립목포병원, 대한결핵협회 등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다. 유공자 표창과 결핵 퇴치를 위한 비전 영상상영, 전남도와 유관기관 업무협약 등이 진행된다. 박간재 기자

기념식장 밖에는 결핵 예방 홍보물 전시, 기념사진 촬영용 포토존을 설치했고 실외 결핵 이동검진 차량에서 무료 결핵 검진도 실시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영상을 통해 “‘경로당 순회 어르신 결핵 검진’ 등 맞춤형 결핵 관리 시책을 펼쳐 유관기관과 협력해 결핵 퇴치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진도 울돌목 주말장터 내일 개장... 매 주말 운영

진도군은 불거리와 떡거리가 풍부한 진도 울돌목 주말장터가 25일 개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울돌목 주말장터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도 대교 아래 울돌목 광장에서 열린다.

주말장터에서는 보배섬 진도군의 농수특산물로 만든 송어튀김과 송어회, 전복·해물라면, 간재미·꽃게무침, 전복요리 등의 다양한 먹거리와 활흙미, 울금, 진

도홍주 등의 특산품을 판매한다. 오후 2시~4시 주말장터를 찾은 방문객들이 함께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 전통가요, 난타, 진도의 멋을 담은 국악 연주와 전통 무용 등 불거리도 제공한다.

영상스튜디오인 VR 포토와 풍선 터트리기 등 사격 체험거리도 준비돼 있다. 개장식에는 가수 문희옥, 박우철, 품바지창수 등의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진도=백재현 기자